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women’s informationized conditions and their life changes.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were 452 women living in large and small-medium sized cities. The data analysis used average, Pearson’s correlation, one-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by SAS/PC.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Women’s level of informationized conditions is under median in computer us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The effect of informatization is over median about improving the ability, recognizing from family and neighbor, achieving the occupation. The change of individual and family is under median except educational stimulus, life vitality and educational effect on the family.
I. 서론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각 학교와 직장에서 컴퓨터 사용이 보편화되었으며 급격히 들여서는 우리 생활 모든 부문에 컴퓨터의 영향이 없는 곳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인 여성의 정보화에 대한 관심은 남성에 비해 떨어져있고 있어, 올해 6월 현재 인터넷 이용 비율은 남성의 경우 63.5%, 여성은 52.4%에 이르고 있다(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2). 따라서 아직도 여성의 반응 정도는 정보화 배려에 접촉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취업을 등을 고려해볼 때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정보화 배려에 접촉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면서 정보의 소비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더 크게 된다(서영숙, 1998; 유영환, 1998). 여성의 감성적 창의력과 여성의 정보화가 사회화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임을 인지하면서도 남성세대의 정보화 추리과 정보독점으로 인하여 여성들은 정보화 흐름에서 뒤쳐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회 현대의 사회구조는 사회발전의 측면에서 여성의 기능과 역할의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개인적 차원에서도 인생주의의 변화, 여가시간의 증가에 따라 자신살림 욕구의 측면에서 여성능력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구조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여성들이 다양한 기회를 가질지 여부가 창출에서 자립생활을 해나가고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여성 정보화의 기회가 더욱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한국의 여성은 아직도 전통과 근대의식이 억-Origin하는 이중적인 가족구조 내에서 수동적인 상태로 머물러 있어, 정보화 진행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그 변화가 충격의 폭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보화가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에 관한 논의에서 주된 경청은 성별분업과 관련된 것으로, 여성의 개인적인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여기에는 정보화 및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으로 가사 임이 경감되고 가족원 누구나 쉽게 분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이라는 평가와 오히려 기계화, 자동화되지 못하는 일들은 계속 여성의 부담으로 남게 되려는 전망이 있다. 정보기술의 발전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은 과거 산업혁명 이후 기술발전이 오히려 성별분업의 심화와 여성지위 하락을 가져왔다는 경향적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이재정, 1992).

여성이 가족내에서 정직적으로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세대를 양육하나가는 중요한 역할자라는 측면에서, 여성 개인의 변화가 가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중시되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가족의 가치 등 집합주의의 가치관과 개별주의적 가치관으로 변화하면서(고성주, 2000),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이 가족내에서 기여하는 바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때 과언 정보화 사회에서 여성가족이 어떻게나갈 수 있는 방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생각보아야 하며, 그렇지 못하다면 그 대안도 모색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정보화의 보편적 확산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일부정책과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성인 여성의 정보화 참여 실태를 조사하여, 다양한 축면에서 여성의 정보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며, 사회인 구조학적 변인이 따라 이러한 정보화 효과가 개인 및 가족의 변화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 고자 한다. 또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정보화 관련 변인들이 개인이 인식한 정보화 교육의 효과나 개인 및 가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려한 여러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둔다.

첫째, 성인 여성의 정보화 및 정보화교육 참여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성인 여성의 정보화 효과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또한 개인이 가족의 변화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셋째,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정보화 관련변인간 정보화 효과, 개인과 가족생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선행연구고찰

1. 여성 정보화 및 정보화 교육

급세기 중반 이후 가속화되기 시작한 사회적 변화를 개념적으로 포괄해내기는 매우 어렵지만, 그 변화의 최대공약수는 ‘정보화’에 있을 것이다. 정보는 물결이나 에너지와 같이 생산요소로서 기능하고, 공동체적 가치권에 영향을 미치므로써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이기현 외, 1999). 따라서 미래사회는 정보화의 수준에 따라 그 발전 정도가 관계할 것이므로 사회 구성원의 정보화를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정보화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게 내려질 수 있지만 ‘정보화’는 단순히 기계의 발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활방식의 변화, 즉 문화의 변화라는 견해(오준근, 1996)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현대인 이라면 PC통신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부가가치 가 높은 서비스를 접속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문제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길 옆의 상품이나 서비스 포서스 등을 창출하여 높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로 이어져야 한다.

이처럼 나남이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교육의 적극적인 참여가 크게 요구되고 있다. 여성의 정보화 교육 역시 사회적 배경에 따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희락에서의 정보화 교육에 대한 개념은 계획적이고 탈아ummy적이다. 정체 정보의 지식과 정보의 수준과는 상관관계가 없고, 정보의 질감성의 수준과는 상관관계가 없다.
한 적응력을 제고시키고, 변화된 사회 시스템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태우, 1999). 따라서 교육 내용도 단순히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초기능을 배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분석하고, 정의하며 이에 해결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종합적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성단체, 민간기구 등에서 실시된 여성정화 과정의 경우 교육자, 부족, 정화교육, 조리 및 입증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이원구, 1993: 최원배, 1994). 여성정화의 차원을 고려할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정화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과거의 교육 내용이나 요구도가 무엇인지 제계적으로 분석된 상태에서 교육이 이루어지아야 하고, 각 개인이나 계층간의 교육에 대한 내면적 의식 차가 크게 다양하다므로 교육의 형태 또한 다양해야 한다고 보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여성정화 교육은 체계적인 검토없이 일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성인 여성정화 교육의 현황을 보면 몇몇 여성단체 및 여성전담 사회교육기관 등에서 정화가 바인드 확산을 위한 강연이나 일부 직업교육 프로그램에서 컴퓨터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강연의 경우 산발적이고 일회성에 그치고 있으며, 직업 교육의 경우 기반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극히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며, 그러나 PC활용 수준에 그치고 있다(서영표, 1999: 이태우, 1999).


이제 정화와 사회의 도래로 과거에 남성과 여성의 역할로 다가왔던 영역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고 여성 인력이 사회발전에 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성당 교육과정은 과정을 갤러리 바꾸며 다가오는 정화와 사회에 대해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할 것이며 그러지 못할 경우 정보기술의 발달 역시 여성들의 주관적 인지 만큼 강화시키며 여성의 정보소유의 더욱 커질 것이고(순봉수, 1998) 전체적으로 사회발전의 중요한 한 축을 잇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또한 교육의 시발점은 결국 가정이며 가정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가씨이다므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자녀 교육을 책임지기 위한 여성의 정화교육은 국가적으로 볼 때도 매우 중요한 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여성 인력의 활용은 이 이상 여성 신자원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는 시각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2. 정보화의 여성 개선 및 가족생활변화

근래 들어서 여성의 정보화 이용률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1999년 10월에 14.8%(남성은 30.3%)에 머물던 여성의 인터넷 이용자수가 2001년 12월 이후 50%를 상회하여 남성의 1/2 정도에 불과한 비율이 최근 급상승하고 있다(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1). 이러한 수치는 점차 여성홍 측면에서 중대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하여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서 정
보화가 여성의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주더라도 추정할 수 있다.

서영숙(1996)의 연구에서는 정보화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긍정적 변화로는 녹색평등 증진, 역할균형 감소, 여성의 자녀양육 부담 감소, 여성취업증증, 단순여성부 업무감소, 종교단계 증가 등을 언급하였고 부정적 영향으로는 소외감 증가, 동성비 유리부 부담 증가, 사회조직화로 인한 실직, 비정규직화, 성의 상품화, 기술저해현상 등을 지적하였다.

유정환(1996)은 여성고용구조에 있어 낙관론으로는,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빠른 육아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 조직의 분위기가 격식적이고 기족주 의적이며 가정적인 풍토로부터 평등적이면 본질적인 형태로 전환한다는 점, 정보통신산업의 특성이 여성에게 유리하여 여성 고용이 증가하다는 점, 재택근무, 패트타임, 랜덤후가 노동환경이 새롭게 변하여 여성들에게는 고용 확대의 효과를 갖게 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반면 비관론으로는 정보기술로 인한 자동화로 영향을 받기 쉬운 직무가 정보관리직무로, 이들 직무는 여성에 대한수를 정한다는 점에서 여성 진입의 다짐이 특히 크다는 입 장, 낮은 등급의 여성직무는 쉽게 자동화가 이루어 지므로 여성들은 직무상실의 고용을 겪게 된다는 점, 선후는 신기술로 고용의 이득을 발생하는 것은 주로 과학적이고 관리적인 직무들인데 여기는 여성의 수가 적고 그런 기술을 훈련받을 기회가 적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여성의 정보화가 개인생활이나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조동문 등(1999)의 연구에서 지적한 바, 무엇보다 성장할 환경이 나타나고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남성의 가사참여 증가 등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경영연구를 통하여 정보화가 많이 된 사람일수록 근력적인 성형할것도 가족간 육리의식이 강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박부진(2000)은 정보화가 종합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위계구조를 형성하게 하여 직업환경의 변화, 비정시적 관계의 형성 등을 초래한다고 하였고 특히 가족생

활에 있어서는 가족생활의 고립화, 정보기술 습득수준에 따른 새로운 위계, 평등지향적 가족구조, 가족간의 유대감 변화, 의사소통양상의 이중구조, 상호 작용 감소, 세대관계 변화, 공동체적식 악화 등을 지적하였다. 특히 정보화의 진전으로 인한 권력구조간 평등과 성별 평등은 여성의 의식과 실제 생활형태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였다.


또한, 김동일의 제조설(2001)에서는 정보화로 인한 효과로 지역문화수준 격차가 줄어들고, 소득격차가 줄어들며, 소외감을 많이 느낄 것이며,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며, 사랑의 원예가 늘어날 것이고, 생활이 편리해질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대부분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 수준이 높은수록, 연령이 20대와 30대인 경우, 작업이 전문관리형직과 사무직인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박부진(2000)은 정보화가 종합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위계구조를 형성하게 하여 직업환경의 변화, 비정시적 관계의 형성 등을 초래한다고 하였고 특히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가름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조사는 1개 정책시 및 2개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여성 대상으로 2003년 11월 5일부터 23일까지 설문조사를하였으며, 설문지는 총 500부를 배포하여
<table>
<thead>
<tr>
<th>구분</th>
<th>본래</th>
<th>비도(명)</th>
<th>백분율(%)</th>
</tr>
</thead>
<tbody>
<tr>
<td>연령</td>
<td>20대</td>
<td>104</td>
<td>21.6</td>
</tr>
<tr>
<td></td>
<td>30대</td>
<td>175</td>
<td>36.5</td>
</tr>
<tr>
<td></td>
<td>40대</td>
<td>175</td>
<td>36.3</td>
</tr>
<tr>
<td></td>
<td>50대</td>
<td>27</td>
<td>5.6</td>
</tr>
<tr>
<td>결혼</td>
<td>기혼</td>
<td>106</td>
<td>22.0</td>
</tr>
<tr>
<td></td>
<td>미혼</td>
<td>136</td>
<td>28.7</td>
</tr>
<tr>
<td>결혼</td>
<td>5년 이하</td>
<td>53</td>
<td>11.4</td>
</tr>
<tr>
<td></td>
<td>6-10년</td>
<td>79</td>
<td>17.0</td>
</tr>
<tr>
<td></td>
<td>11-15년</td>
<td>68</td>
<td>15.1</td>
</tr>
<tr>
<td></td>
<td>16-20년</td>
<td>83</td>
<td>18.1</td>
</tr>
<tr>
<td></td>
<td>21년 이상</td>
<td>93</td>
<td>20.1</td>
</tr>
<tr>
<td>교육</td>
<td>중졸이하</td>
<td>49</td>
<td>10.9</td>
</tr>
<tr>
<td></td>
<td>고졸</td>
<td>237</td>
<td>52.3</td>
</tr>
<tr>
<td></td>
<td>대졸</td>
<td>191</td>
<td>42.4</td>
</tr>
<tr>
<td></td>
<td>대학원이상</td>
<td>15</td>
<td>3.3</td>
</tr>
<tr>
<td>중고</td>
<td>기독교</td>
<td>125</td>
<td>27.9</td>
</tr>
<tr>
<td></td>
<td>불교</td>
<td>86</td>
<td>18.7</td>
</tr>
<tr>
<td></td>
<td>전주교</td>
<td>112</td>
<td>24.7</td>
</tr>
<tr>
<td></td>
<td>유교</td>
<td>3</td>
<td>0.6</td>
</tr>
<tr>
<td></td>
<td>기타</td>
<td>6</td>
<td>1.3</td>
</tr>
<tr>
<td>본인</td>
<td>종교</td>
<td>141</td>
<td>30.9</td>
</tr>
<tr>
<td>외향</td>
<td>진의</td>
<td>55만원 이하</td>
<td>37</td>
</tr>
<tr>
<td></td>
<td>51-100만원 이하</td>
<td>117</td>
<td>24.3</td>
</tr>
<tr>
<td></td>
<td>101-150만원 이하</td>
<td>105</td>
<td>21.8</td>
</tr>
<tr>
<td></td>
<td>151-200만원 이하</td>
<td>65</td>
<td>13.5</td>
</tr>
<tr>
<td></td>
<td>201만원 이상</td>
<td>34</td>
<td>7.0</td>
</tr>
<tr>
<td></td>
<td>없음</td>
<td>124</td>
<td>27.5</td>
</tr>
<tr>
<td>가족</td>
<td>외향</td>
<td>35</td>
<td>7.3</td>
</tr>
<tr>
<td></td>
<td>진의</td>
<td>101-150만원 이하</td>
<td>61</td>
</tr>
<tr>
<td></td>
<td>151-200만원 이하</td>
<td>127</td>
<td>26.3</td>
</tr>
<tr>
<td></td>
<td>201-300만원 이하</td>
<td>146</td>
<td>30.3</td>
</tr>
<tr>
<td></td>
<td>301만원 이상</td>
<td>113</td>
<td>23.4</td>
</tr>
<tr>
<td>직업</td>
<td>단순노무직</td>
<td>21</td>
<td>4.4</td>
</tr>
<tr>
<td></td>
<td>사무직</td>
<td>58</td>
<td>12.0</td>
</tr>
<tr>
<td></td>
<td>자영업-판매직</td>
<td>85</td>
<td>17.6</td>
</tr>
<tr>
<td></td>
<td>전문 및 경영관리직</td>
<td>94</td>
<td>20.1</td>
</tr>
<tr>
<td></td>
<td>서 비 스 직</td>
<td>52</td>
<td>11.3</td>
</tr>
<tr>
<td></td>
<td>주부</td>
<td>164</td>
<td>34.8</td>
</tr>
<tr>
<td></td>
<td>기타</td>
<td>8</td>
<td>1.7</td>
</tr>
</tbody>
</table>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482부가 최종 통계처리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30대와 40대가 각각 36%를 상회하였으며, 결혼유무에서는 기혼 78%, 미혼 22%로 각각 나타났다. 결혼유무는 21년 이상이 2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육수준은 고졸 이 42.2%로 가장 많았으며 대졸은 36.4%로 나타났다. 종교에서는 기독교 25.9%, 진의 25.1%로 나타났다. 본인외향적군수록의 경향 특성체들은 25.7%, 51-100만원이하가 24.3%, 101-150만원이하가 21.8%로 나타났다. 가족 외향적군수록은 201-300만원이하가 23.9%, 301만원 이상이 2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업은 기술직 30.3%, 서 비 스 직 34.8%로 나뉘어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1>과 같다.

2. 조사도구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정보화교육의 실태에서는 정보화 교육의 경험을 조사하는 항목으로 정보화 교육의 경험유무, 정보화 교육을 처음 받은 시기는 받은 충격이, 교육에 참여한 기간 등 정보화 교육 성과, 정보화 관련교육 계획 등으로 구성하였다. 교육의 필요성에서의 교육의 필요성 및 이유, 정보화교육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 등을 묻는 5점 척도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정보화 교육의 장애요인을 묻는 항목 역시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문항은 연구결과 참조).

정보화의 효과 측정 항목으로는 인간관계의 발전, 개인적인 능력이나 자질의 향상, 직업적 성취(취업, 수임증가 등), 가족 및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지식사회 활동의 참여 및 소통 등의 5점 척도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9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면서 자신에게 변화된 점을 측정하기 위하여 가사일이나 직장일하는 시간 감소, 사회생활의 다양화, 생활의 향상, 교육적 자극, TV 시청시간 감소, 신문, 독서 시간 감소, 수면 시간 감소, 낙과 대화시간 감소 등의 8문항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Cronbach’s α = .84).

정보화 사회가 발달하면서 가족에게 일어난 변화로는, 근래적 가치의식이나 라디컬, 가족의 생활모습이 다양화, 가족간 대화가 다양화, 가족에게 긍정적인 교육적 영향, 가족이 서로 모이거나 함께 활동하는 시간 감소, 가족이 가사노동이나 집안일에 몰두하는 시간 감소, 가족 구성원의 일원화(높은 귀부, PC망 출입, 쇼핑 등) 증가, 가족간 대화시간 감소, 가족간의 갈등, 안정, 다름 증가, 가정경제에 여가하지 못한 발생 등의 10문항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Cronbach’s α = .77).

3. 자료의 분석

표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AS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비모,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초 통계와 one-way ANOVA, 적합성관계계수(Pearson’s r), 중대비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정보화 및 정보화교육의 실태

1) 정보화 실태

(1) 컴퓨터 프로그램 이용 정도

조사대상 여성의 정보화 수준을 조사하기 위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이용 정도를 측정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문서작성, 이메일 송수신, 개인관리(전화번호, 가계부 등) 등의 모든 항목에서 중간정도 3점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 중 문서작성과 이메일 송수신은 3점에서 가장 가까운 점수를 보이던 영역보다는 비교적 높은 사용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읽고 중권업무, 개인관리 등에서는 아직 이용 수준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양서(2000)의 연구에서 컴퓨터 이용지수를 남성의 경우 100으로 평균은 33.9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부의 경우에는 109로 나타나 성인 여성의 컴퓨터 사용정도가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고 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성인 여성의 정보화 이용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지식부족 등의 경우 그 수준이 크게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 평균 컴퓨터 사용시간을 보면(표 2 참고), 5시간 이하가 35.1%로 가장 높아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5-10시간 14.5%, 10-15시간 7.2% 순으로 나타났으며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32.3%로 나타나, 성인 여성 상당수가 1시간 미만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thead>
<tr>
<th>표 2</th>
<th>컴퓨터 프로그램 이용 정도</th>
</tr>
</thead>
<tbody>
<tr>
<td></td>
<td>M</td>
</tr>
<tr>
<td>1. 문서작성</td>
<td>2.98</td>
</tr>
<tr>
<td>2. 이메일 송·수신</td>
<td>2.98</td>
</tr>
<tr>
<td>3. 개인관리(전화번호, 가계부 등)</td>
<td>2.25</td>
</tr>
<tr>
<td>4. 인터넷 쇼핑</td>
<td>2.40</td>
</tr>
<tr>
<td>5. 읽고 중권업무</td>
<td>2.01</td>
</tr>
<tr>
<td>6. 자녀교육 등 필요한 정보 습득</td>
<td>2.85</td>
</tr>
<tr>
<td>평균</td>
<td>2.56</td>
</tr>
</tbody>
</table>
(2) 정보화 기술 수준

표 3에서와 같이 여성들의 정보화 기술 수준은 낮은 분야는 홈페이지작성 및 관리, 전자상거래, 기타 응용프로그램이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웹포레서터 인터넷, 메일송수신은 다른 영역에 비해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영역이 기초수준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짧은 시간에 습득하기 쉬운 내용이며 주로 활용하는 교육내용인 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성의 정보화 수준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평균수준보다는 낮은 실정이므로(한국정보문화센터, 2001) 앞으로 보다 다양한 그리고 고급화된 교육 내용으로 진행하는 일이 필요하다.

(3) 정보화 목표

정보화 기술 습득의 목표를 묻는 문항에서는(표 4), 전체 평균이 3.33으로 3점을 기준으로 볼 때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 중에서 개인 및 가정생활에 실제 활용하기 위해서는 3.7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족과 교양을 높이기 위해 3.65점으로 나타난 반면 취업, 부업 및 자격증이 필요하기 2.77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정보화의 목표가 다소 개인적인 능력향상과 활용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정보문화센터(2000)에 의하여 성인남녀의 경우 이용 목표가 여가시간활용, 업무처리, 정보관리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개인 및 가정생활활용을 우선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보아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보다 적극적인 사회활용과 여성능력 교양을 위한 목적으로 여성의 정보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

2) 정보화 교육 실태

(1) 교육 경향

정보화 교육을 받은 경향을 묻는 문항(표 5)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58.0%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2.0%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전체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한국정보문화센터, 2001)에 의하면

<table>
<thead>
<tr>
<th>표 3</th>
<th>정보화 기술수준</th>
</tr>
</thead>
<tbody>
<tr>
<td></td>
<td>없 다</td>
</tr>
<tr>
<td></td>
<td>N</td>
</tr>
<tr>
<td>1. 웹포레서터(문서작성)</td>
<td>229</td>
</tr>
<tr>
<td>2. 인터넷</td>
<td>214</td>
</tr>
<tr>
<td>3. 홈페이지 작성 및 관리</td>
<td>314</td>
</tr>
<tr>
<td>4. 메일 송수신</td>
<td>246</td>
</tr>
<tr>
<td>5. 전자상거래</td>
<td>308</td>
</tr>
<tr>
<td>6. 기타 응용소프트웨어 활용</td>
<td>301</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표 4</th>
<th>정보화 기술 습득의 목표</th>
</tr>
</thead>
<tbody>
<tr>
<td></td>
<td>M</td>
</tr>
<tr>
<td>정보화</td>
<td>2.77</td>
</tr>
<tr>
<td>교육목</td>
<td>3.33</td>
</tr>
<tr>
<td>응답</td>
<td>3.65</td>
</tr>
<tr>
<td>목표</td>
<td>3.71</td>
</tr>
<tr>
<td>전체</td>
<td>3.33</td>
</tr>
</tbody>
</table>

-178-
<table>
<thead>
<tr>
<th>교육 유무</th>
<th>N</th>
<th>%</th>
</tr>
</thead>
<tbody>
<tr>
<td>유</td>
<td>278</td>
<td>58.0</td>
</tr>
<tr>
<td>무</td>
<td>301</td>
<td>42.0</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첫 교육받은 시기</th>
<th>N</th>
<th>%</th>
</tr>
</thead>
<tbody>
<tr>
<td>1년 전 (2000)</td>
<td>87</td>
<td>31.9</td>
</tr>
<tr>
<td>2년 전 (1999)</td>
<td>42</td>
<td>15.4</td>
</tr>
<tr>
<td>3년 전 (1998)</td>
<td>35</td>
<td>12.8</td>
</tr>
<tr>
<td>4년 전 이상 (1997)</td>
<td>109</td>
<td>40.0</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교육 측기간</th>
<th>N</th>
<th>%</th>
</tr>
</thead>
<tbody>
<tr>
<td>3개월 이하</td>
<td>136</td>
<td>69.9</td>
</tr>
<tr>
<td>4 ~ 6개월</td>
<td>59</td>
<td>122</td>
</tr>
<tr>
<td>7 ~ 12개월</td>
<td>36</td>
<td>7.5</td>
</tr>
<tr>
<td>13 ~ 24개월</td>
<td>26</td>
<td>5.4</td>
</tr>
<tr>
<td>25개월 이상 24</td>
<td>5.0</td>
<td></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교육 참여 계기나 경로</th>
<th>N</th>
<th>%</th>
</tr>
</thead>
<tbody>
<tr>
<td>바스란이나 교육 등을 통해</td>
<td>40</td>
<td>14.4</td>
</tr>
<tr>
<td>학교나 직장을 통해</td>
<td>101</td>
<td>36.3</td>
</tr>
<tr>
<td>컴퓨터를 구입하면서</td>
<td>33</td>
<td>11.9</td>
</tr>
<tr>
<td>스스로 필요성을 느껴서</td>
<td>14</td>
<td>5.0</td>
</tr>
<tr>
<td>기타</td>
<td>88</td>
<td>31.7</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관리</th>
<th>N</th>
<th>%</th>
</tr>
</thead>
<tbody>
<tr>
<td>사설학원/ 컴퓨터 회사</td>
<td>63</td>
<td>31.5</td>
</tr>
<tr>
<td>정부가 가족으로부터</td>
<td>46</td>
<td>16.5</td>
</tr>
<tr>
<td>정부나 지역자치단체</td>
<td>47</td>
<td>16.9</td>
</tr>
<tr>
<td>학교경우수유</td>
<td>28</td>
<td>10.1</td>
</tr>
<tr>
<td>직장 내 교육과정</td>
<td>31</td>
<td>11.2</td>
</tr>
<tr>
<td>학교/단체/법인 등에</td>
<td>29</td>
<td>10.4</td>
</tr>
<tr>
<td>기타</td>
<td>4</td>
<td>1.4</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교육 계획</th>
<th>N</th>
<th>%</th>
</tr>
</thead>
<tbody>
<tr>
<td>교육받을 계획이 없다</td>
<td>6</td>
<td>3.0</td>
</tr>
<tr>
<td>어려의면 교육을 받을 계획이다</td>
<td>173</td>
<td>86.1</td>
</tr>
<tr>
<td>교육 계획</td>
<td>22</td>
<td>10.9</td>
</tr>
</tbody>
</table>

다음 교육은 받은 비율은 86.4%, 받지 않은 비율은 13.6%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 여성의 경우 매우 낮은 교육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처음 교육받은 시기는 1년 전 31.9%, 2년 전 15.4%, 3년 전 12.8%, 4년 전 이상이 40.0%로 나타나, 비교적 최근에 교육받은 비율이 높지만 오래 전에 교육받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기술이 빠르게 나타나게 되어 이후에도 적극적인 발전을 흉내낼 수 있을 수 있다. 교육받은 총기간은 3개월이하가 6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4~6개월이 12.2%로 나타나 교육에 참여하는 기간이 단기간임을 알 수 있으며 정보화 교육이 기초교육에 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교육 참여계기나 경로는 학교나 직장을 통한 경우가 3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서 31.9%, 바스란이나 교육 등을 통해 14.3%,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5.0%,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서 31.7%, 기타 등 다양한 경우가 많아 교육 참여계기나 경로로 나타나 아카데미 및 사설학원의 교육에 대한 이용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수월하게 정보화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정보화 관련 교육계획의 경우 정보화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 응답하였는데 여성이 외면 교육을 받을 계획이 86.1%, 학교 교육을 받을 계획이 10.9%, 교육받을 계획이 없다가 3.0%로 나타나 정보화 교육에 대한 의지가 높게 나타났다. 한국정보문화센타(2000)의 조사에서도 정보화교육계획이 있다고 하여 66.1%를 나타내며 이용할 계획이 없다고 하여 28.9%로 나타나, 성인 여성의 정보화 교육에 대한 욕구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 교육의 필요성

정보화 교육의 필요성 인식이나, 정보화 교육에

<table>
<thead>
<tr>
<th>&lt;표 6&gt; 정보화 교육의 필요성</th>
</tr>
</thead>
<tbody>
<tr>
<td>1. 정보화 교육의 필요성 인식</td>
</tr>
<tr>
<td>2. 정보화 교육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td>
</tr>
<tr>
<td>전 체</td>
</tr>
</tbody>
</table>
대한 관심이나 홍미 등을 살펴본 결과(표 6), 중간점 3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정보화 교육의 필요성은 2.88로 나타나 필요성의 인식 정도가 그리 높지 않은 응답을 알 수 있고 정보화 교육에 대한 관심이나 홍미는 3점을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현구. 2000)에서도 정보화에 대한 관심이 남설을 100으로 볼 때 여성은 31.7로 낮게 나타난 바 있다.

(3) 교육의 임재요인

정보화 교육의 임재요인으로는 전체 평균이 2.84 점으로 중간점 3점보다 낮게 나타나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그나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이나 다른 일이 바쁘다고 3.5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적당한 교육기관이 없거나 오해가 있는 점보다 하루 3.09점, 수강료나 교육비 등을 내기라 부담스럽다 3.02점으로 시간적, 경제적 요인과 교육환경적 이유가 정보화교육을 받을 때의 어려움 정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업을 가진 여성의 경우 임재적인 직장일 등의 시간제약이 있으며 다양한 교육시간의 확대, 저렴한 수강료 책정, 다양한 교육장소 등이 요구된다고 본다. 한국정보문화센터(2000)의 조사에서는 관심부족 38.1%, 시간부족 35.0%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본 조사대상 여성의 경우 관심부족은 가장 낮아, 사회적 어려운 편을 형성해 주는 것이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정보화의 효과

정보화로 인해 얻어진 효과(표 8)는 전체 평균 3.36 점으로 중간점 3점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개인적인 능력이나 자질의 향상 3.81점, 가족 및 주위사람들로부터의 인정 3.29점, 직업적 상황(취업, 수입증가 등) 3.27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적인 능력향상과 가족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점 등 개인적인 목적이나 가장 두드러진 효과이며 변호 정보화로 인한 지역사회활동의 참여 및 봉사는 중간점 3점 이하로 나타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는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개인과 가족에서의 효과가 지역사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화가 개인과 가정의 발전뿐만 아니라 직업성취나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발휘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정보화 사회로 인한 자신의 변화

정보화 사회로 인한 자신의 변화(표 9)는 전체 평균 2.74로 중간점 3점보다 낮게 나타나 변화의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적 자극을 받은 3.33점, 생활의 혈액을 얻은 3.06점 등은 

<table>
<thead>
<tr>
<th>표 8</th>
<th>정보화의 효과</th>
<th>M</th>
<th>SD</th>
</tr>
</thead>
<tbody>
<tr>
<td>인지관계의 발전</td>
<td>3.12</td>
<td>1.94</td>
<td></td>
</tr>
<tr>
<td>개인적인 능력이나 자질의 향상</td>
<td>3.81</td>
<td>0.92</td>
<td></td>
</tr>
<tr>
<td>직업적 상황(취업, 수입증가 등)</td>
<td>3.27</td>
<td>1.18</td>
<td></td>
</tr>
<tr>
<td>가족 및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인정</td>
<td>3.29</td>
<td>1.06</td>
<td></td>
</tr>
<tr>
<td>지역사회 활동의 참여 및 봉사</td>
<td>2.94</td>
<td>1.11</td>
<td></td>
</tr>
<tr>
<td>전체</td>
<td>3.26</td>
<td>0.81</td>
<td></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표 7</th>
<th>정보화 교육의 임재요인</th>
<th>M</th>
<th>SD</th>
</tr>
</thead>
<tbody>
<tr>
<td>정보화</td>
<td>컴퓨터에 관심이나 홍미가 별로 없다</td>
<td>2.44</td>
<td>1.99</td>
</tr>
<tr>
<td>교육의</td>
<td>배우고 싶은 부분이 많지만 프로그램이 별로 없다</td>
<td>2.47</td>
<td>1.06</td>
</tr>
<tr>
<td>경제요인</td>
<td>적당한 교육기관이 없거나 오해가 복잡하다</td>
<td>3.09</td>
<td>1.21</td>
</tr>
<tr>
<td>수강료나 교육비 등을 내기나 부담스럽다</td>
<td>3.02</td>
<td>1.22</td>
<td></td>
</tr>
<tr>
<td>가정이나 다른 일이 바쁘다</td>
<td>3.25</td>
<td>1.16</td>
<td></td>
</tr>
<tr>
<td>전체</td>
<td>2.84</td>
<td>0.81</td>
<td></td>
</tr>
</tbody>
</table>
여에는 증간점보다 다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즉 정보화 사회가 각각에게 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TV시청 시간, 신문이나 책읽는 시간, 잡지 읽는 시간, 낭과 대화하는 시간 등 시간활용에는 아직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일상적인 생활에도 아직은 큰 변화를 야기시키지 않을 것으로 같다. 이러한 결과는 본 조사대상 여성의 정보화 수용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이다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정보문화센터(2000)의 조사결과는 TV시청시간, 선문원, 잡지 읽는 시간, 공부시간, 가정, 직장 등 시간의 순으로 변화를 나타내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5) 정보화 사회로 인한 가족의 변화
정보화 사회로 인한 가족의 변화(표 10)도 전체 평균 2.69점으로 3점 기준으로 보면 낮게 나타났다. 가족에게 정보화의 영향이 3.8점의 영향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3점 미만으로 나타나 가족의 변화에 정보화가 아직은 그나마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화 사회상정의 변화는 가족구조가 변화하기 전에 여론은 일정할 수 있지만(1988)의 연구결과와도 동일한 결과이다.

2. 사회인구학적변인에 따른 차이
1)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정보화 효과(표 11)에
는 연령, 결혼자녀수, 교육수준, 본인 월평균소득, 직업, 결혼연휴 등에서 유의한 차이(p<0.01, p<0.001)가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20대 집단이 다른 연령집단보다 교육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결혼자녀수의 경우 5년이하 집단이 6년이상된 집단보다 정보화 교육효과가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의 경우 중졸이 하직할보다 고휴과 대학이상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본인의 월평균소득의 경우 50만원이하 집단보다 51-100만원 집단과 101-150만원집단에서 교육결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 단순노무직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사무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혼연휴의 경우 미혼집단이 기혼집단보다 교육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은 성우에 교육의 효과가 높게 나타나 교육의 차별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즉 교육의 결과가 높게 나타난 여성집단에서는 보다 더 전문화된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며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과 소득이 낮은 여성집단들에게는 여성정보화에 더 많은 시간과 세심한 노력을 투자하여야만 소외여성의 정
### 표 11
사회인구학적 범위에 따른 정보화 효과
(유의 차 변화만 제시)

<table>
<thead>
<tr>
<th>변인</th>
<th>정보화 schw</th>
<th>F</th>
<th>D</th>
</tr>
</thead>
<tbody>
<tr>
<td>연령</td>
<td>20</td>
<td>17.50</td>
<td>A</td>
</tr>
<tr>
<td></td>
<td>30</td>
<td>16.53</td>
<td>AB</td>
</tr>
<tr>
<td></td>
<td>40</td>
<td>15.61</td>
<td>B</td>
</tr>
<tr>
<td></td>
<td>50</td>
<td>14.00</td>
<td>C</td>
</tr>
<tr>
<td>결혼</td>
<td>5년 이하</td>
<td>17.06</td>
<td>A</td>
</tr>
<tr>
<td></td>
<td>6 - 10년</td>
<td>16.45</td>
<td>AB</td>
</tr>
<tr>
<td></td>
<td>11 - 15년</td>
<td>16.38</td>
<td>AB</td>
</tr>
<tr>
<td></td>
<td>16 - 20년</td>
<td>15.99</td>
<td>B</td>
</tr>
<tr>
<td></td>
<td>21년 이상</td>
<td>15.27</td>
<td>B</td>
</tr>
<tr>
<td>교육</td>
<td>중졸이하</td>
<td>13.23</td>
<td>B</td>
</tr>
<tr>
<td></td>
<td>고졸</td>
<td>15.96</td>
<td>A</td>
</tr>
<tr>
<td></td>
<td>대졸이상</td>
<td>17.16</td>
<td>B</td>
</tr>
<tr>
<td>본인</td>
<td>50만원 이하</td>
<td>14.76</td>
<td>B</td>
</tr>
<tr>
<td></td>
<td>51 - 100만원</td>
<td>16.86</td>
<td>A</td>
</tr>
<tr>
<td></td>
<td>101 - 150만원</td>
<td>17.15</td>
<td>A</td>
</tr>
<tr>
<td></td>
<td>151 - 200만원</td>
<td>16.03</td>
<td>A</td>
</tr>
<tr>
<td></td>
<td>201만원 이상</td>
<td>16.18</td>
<td>AB</td>
</tr>
<tr>
<td>소득</td>
<td>50만원 이하</td>
<td>15.59</td>
<td>AB</td>
</tr>
<tr>
<td></td>
<td>자영업</td>
<td>13.52</td>
<td>C</td>
</tr>
<tr>
<td></td>
<td>사무직</td>
<td>15.90</td>
<td>AB</td>
</tr>
<tr>
<td></td>
<td>서비스직</td>
<td>17.00</td>
<td>AB</td>
</tr>
<tr>
<td></td>
<td>전문직</td>
<td>17.30</td>
<td>A</td>
</tr>
<tr>
<td></td>
<td>경영관리직</td>
<td>17.20</td>
<td>AB</td>
</tr>
<tr>
<td></td>
<td>주부</td>
<td>15.55</td>
<td>B</td>
</tr>
<tr>
<td>결혼</td>
<td>기혼</td>
<td>15.97</td>
<td>9.71**</td>
</tr>
<tr>
<td></td>
<td>미혼</td>
<td>17.35</td>
<td>9.71**</td>
</tr>
</tbody>
</table>

**p<.01  ***p<.001

정보화 효과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인구학적 범위에 따른 정보화 사회에서의 자산의 변화

정보화 사회에서의 자산의 변화(표 12)에서는 연령, 결혼지속시간, 교육수준, 본인 월평균소득, 직업, 결혼유무에서 유의한 차이(p<.05, p<.01, p<.001)가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20대가 40대보다 자산의 변화가 더 크게 인지되고 있다. 결혼지속시간의 경우 5년이하가 16-20년, 21년이상인 결혼보다 경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본인 월평균 소득의 경우 51-100만원, 101-150만원, 201만원이상 집단이 다른 소득

### 표 12
사회인구학적 범위에 따른 정보화 사회에서의 자산/가계의 변화(유의 차 변화만 제시)

<table>
<thead>
<tr>
<th>변인</th>
<th>정보화 schw</th>
<th>F</th>
<th>D</th>
</tr>
</thead>
<tbody>
<tr>
<td>연령</td>
<td>20</td>
<td>23.82</td>
<td>A</td>
</tr>
<tr>
<td></td>
<td>30</td>
<td>22.22</td>
<td>AB</td>
</tr>
<tr>
<td></td>
<td>40</td>
<td>20.43</td>
<td>B</td>
</tr>
<tr>
<td></td>
<td>50</td>
<td>21.15</td>
<td>B</td>
</tr>
<tr>
<td>결혼</td>
<td>5년 이하</td>
<td>23.50</td>
<td>A</td>
</tr>
<tr>
<td></td>
<td>6 - 10년</td>
<td>22.06</td>
<td>A</td>
</tr>
<tr>
<td></td>
<td>11 - 15년</td>
<td>21.47</td>
<td>AB</td>
</tr>
<tr>
<td></td>
<td>16 - 20년</td>
<td>20.26</td>
<td>B</td>
</tr>
<tr>
<td></td>
<td>21년 이상</td>
<td>20.90</td>
<td>B</td>
</tr>
<tr>
<td>교육</td>
<td>중졸이하</td>
<td>20.43</td>
<td>B</td>
</tr>
<tr>
<td></td>
<td>고졸</td>
<td>21.32</td>
<td>A</td>
</tr>
<tr>
<td></td>
<td>대졸이상</td>
<td>23.85</td>
<td>B</td>
</tr>
<tr>
<td>본인</td>
<td>50만원 이하</td>
<td>19.43</td>
<td>B</td>
</tr>
<tr>
<td></td>
<td>51 - 100만원</td>
<td>21.16</td>
<td>A</td>
</tr>
<tr>
<td></td>
<td>101 - 150만원</td>
<td>23.33</td>
<td>A</td>
</tr>
<tr>
<td></td>
<td>151 - 200만원</td>
<td>21.75</td>
<td>AB</td>
</tr>
<tr>
<td></td>
<td>201만원 이상</td>
<td>22.76</td>
<td>A</td>
</tr>
<tr>
<td>소득</td>
<td>50만원 이하</td>
<td>20.82</td>
<td>AB</td>
</tr>
<tr>
<td></td>
<td>자영업</td>
<td>18.57</td>
<td>B</td>
</tr>
<tr>
<td></td>
<td>사무직</td>
<td>18.78</td>
<td>A</td>
</tr>
<tr>
<td></td>
<td>서비스직</td>
<td>14.02</td>
<td>A</td>
</tr>
<tr>
<td></td>
<td>전문직, 경영관리직</td>
<td>23.79</td>
<td>A</td>
</tr>
<tr>
<td></td>
<td>주부</td>
<td>23.43</td>
<td>AB</td>
</tr>
<tr>
<td></td>
<td>기혼</td>
<td>21.32</td>
<td>20.45***</td>
</tr>
<tr>
<td></td>
<td>미혼</td>
<td>24.49</td>
<td>20.45***</td>
</tr>
</tbody>
</table>

**p<.05  ***p<.001

집단보다 자신의 변화를 더 크게 인지하였다. 직업의 경우 사무직, 전문직, 경영관리직, 서부직능직, 주부 집단이 다른 직업집단보다 자신의 변화 점수가 더 크게 나타났다. 결혼유무의 경우 미혼집단이
기혼집단보다 자신의 변화를 더 크게 인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정보화의 접속 기회와 변화의 결과와는 상호 연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정보화 사회에서의 가족의 변화

정보화사회로 인한 가족의 변화(표 13)는 교육수준이 높고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유의한 차이(p<0.05)가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경우 중졸이하집단보다 대졸이상 집단에서 가족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본인의 월평균소득에서 50만원이하 집단보다 51-100만원, 101-150만원, 201만원이상 집단에서 가족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났다. 교육수준과 본인소득이 낮은 경우 가족의 변화가 더 적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 정보화의 접속 기회도 적고 외부환경에 대한 자극을 수용하는 정도나 변화에 대한 대응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3.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정보화 관련변인의 정보화 효과, 자신과 가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1) 관련변인간 상관관계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정보화 관련변인간의 상관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표 13)과 같다. 연령, 학력, 결혼유무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컴퓨터에 응용도, 정보화 효과, 자신의 변화 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소득의 경우 앞서 차이점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선형성이 확보되지 않아 유의상관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보화 관련 변인들은 상호간에 비교적 긴밀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목적적이 두대수록 효과도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r=0.47), 자신의 변화(r=0.40)도 증가하고 있다. 컴퓨터 이용 정도가 클수록 자신의 변화(r=0.41)가 크게 증가하며 정보화 효과 역시 자신의 변화(r=0.43)와 높게 연관되고 있다. 또한 자신의 변화는 가족의 변화(r=0.53)와 긴밀한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성정보화는 여성 개인의 변화나 가족의 변화와 연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관련변인간 정보화 효과, 자신과 가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정보화 관련변인간의 정보화 효과 및 자신과 가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하여 의례적 다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관련변인 중에서는 앞서 차이 분석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인 변인을 중심으로 독립변인으로

<table>
<thead>
<tr>
<th>관련변인간 상관관계</th>
<th>연령</th>
<th>교육수준</th>
<th>본인소득</th>
<th>결혼유무</th>
<th>컴퓨터</th>
<th>아동종양</th>
<th>정보화</th>
<th>정보화</th>
<th>정보화</th>
<th>정보화</th>
<th>정보화</th>
<th>자신의</th>
<th>가족의</th>
</tr>
</thead>
<tbody>
<tr>
<td></td>
<td>1</td>
<td>2</td>
<td>3</td>
<td>4</td>
<td>5</td>
<td>6</td>
<td>7</td>
<td>8</td>
<td>9</td>
<td>10</td>
<td>11</td>
<td></td>
<td></td>
</tr>
<tr>
<td>2</td>
<td>-477**</td>
<td>-0.65</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3</td>
<td>-574***</td>
<td>-429***</td>
<td>-34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5</td>
<td>-308***</td>
<td>-348***</td>
<td>-0.36</td>
<td></td>
<td>-215***</td>
<td>-278***</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6</td>
<td>-0.65</td>
<td>-0.48</td>
<td>-0.63</td>
<td>-0.73</td>
<td>-0.08</td>
<td>-341***</td>
<td>-200***</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7</td>
<td>-167***</td>
<td>-290***</td>
<td>-100**</td>
<td>-0.31</td>
<td>-341***</td>
<td>-200***</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8</td>
<td>-0.10</td>
<td>-0.02</td>
<td>-0.09</td>
<td>-0.03</td>
<td>-188***</td>
<td>-188***</td>
<td>-148**</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9</td>
<td>-103***</td>
<td>-247***</td>
<td>-0.07</td>
<td>-0.14**</td>
<td>-0.31</td>
<td>-232***</td>
<td>-472**</td>
<td>0.37</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0</td>
<td>167***</td>
<td>-200***</td>
<td>-0.06</td>
<td>-0.05</td>
<td>-143***</td>
<td>-184***</td>
<td>0.03</td>
<td>-0.17</td>
<td>-0.42**</td>
<td>-0.52**</td>
<td></td>
<td></td>
<td></td>
</tr>
<tr>
<td>11</td>
<td>0.06</td>
<td>-0.11</td>
<td>-0.04</td>
<td>-0.01</td>
<td>-134***</td>
<td>0.01</td>
<td>-247***</td>
<td>168***</td>
<td>346***</td>
<td>520***</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0.05 **p<0.01 ***p<0.001
<표 14> 관련변인이 정화량의 효과, 자신과 가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table>
<thead>
<tr>
<th></th>
<th>정보화의 효과</th>
<th>자신의 변화</th>
<th>가족의 변화</th>
</tr>
</thead>
<tbody>
<tr>
<td></td>
<td>B</td>
<td>β</td>
<td>B</td>
</tr>
<tr>
<td>연령</td>
<td>-07</td>
<td>04</td>
<td>139</td>
</tr>
<tr>
<td>교육수준</td>
<td>1.10</td>
<td>07</td>
<td>26</td>
</tr>
<tr>
<td>본인목표단계</td>
<td>1.33</td>
<td>01</td>
<td>1.42</td>
</tr>
<tr>
<td>결혼유무</td>
<td>1.56</td>
<td>03</td>
<td>2.73</td>
</tr>
<tr>
<td>컴퓨터사용정도</td>
<td>2.74</td>
<td>15**</td>
<td>5.79</td>
</tr>
<tr>
<td>정보화성향</td>
<td>2.32</td>
<td>10*</td>
<td>1.67</td>
</tr>
<tr>
<td>정보화목적</td>
<td>8.20</td>
<td>36***</td>
<td>3.82</td>
</tr>
<tr>
<td>정보화교육이</td>
<td>84</td>
<td>04</td>
<td>20</td>
</tr>
<tr>
<td>성격요인</td>
<td>0.72</td>
<td>32***</td>
<td>2.31</td>
</tr>
</tbody>
</table>

# 결과 유무 : dummy 변수(0:배우자 유, 1:배우자 부)
* p<.05 ** p<.01 *** p<.001

구성하였고 성장 상관계수가 .60 이하임을 확인하였 다. 또한 구성된 회귀식의 Durbin Watson 계수는 1.82~1.94로 2로 근접하고 있어 전차간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회귀가정은 만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정보화 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컴퓨터 이용 정도(β=.13). 정보화목적(β=.38). 정보화 교육 필요성(β=.20). 등이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력의 합은 27%로 나타났다. 즉 컴퓨터 이용을 많이 할수록, 정보화목적을 향후 기대할수록, 정보화 교육의 필요성을 더 느낄수록 정보화의 효과는 향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한편 자신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컴퓨터 이용 정도(β=.26). 정보화목적(β=.17). 정보화 효과(β=.22) 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영향력은 36%으로 나타났다. 즉 컴퓨터 이용을 많이 할수록, 정보화목적을 향후 기대할수록, 정보화의 효과가 높을수록 자신의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정보화교육이 장애요인(β=.15). 정보화의 효과 (β=.11). 자신의 변화(β=.55) 등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영향력은 36%로 나타났다. 즉 정보화교육이의 장애요인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정보화의 효과가 높을수록 자신의 변화가 높은 가족의 변화를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정보화의 효과 및 자신과 가족의 변화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정보화의 영향이 개인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 며, 개별로는 정보화에 대한 욕구나 실제 정보화 참여도 등 실질적인 정보화 수수함이 절대적인 영향 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보화에 참여하여 실험적인 효과를 보이아야 자신의 변화가 있어도 될 수 있다고 보아서 자신의 변화가 가족의 변화를 이 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성인 여성의 정보화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정보화의 발전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성인여성 4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여 다 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성인 여성의 정보화 실태를 보면 컴퓨터 프 로그램 이용정도의 경우 문서작성 비해일 손수신
은 다른 영역보다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 내고 있으나 전반적인 컴퓨터 이용정도는 아직은 높지 않을 수 있다. 정보화 기술 수준을 보면 주로 레드프로세서, 인터넷, 메일송수신을 할 수 있 으나 그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
목적의 경우 전자 평균이 3.33점으로 중간점보다 다
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 중에서 개인 및 가정생활에
제로 활용하기 위해서가 3.7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취업·부업 및 가정주정은 필요해서 2.77로
가
점 낮은 점수를 보여 교육의 목적이 다소 개인적인
능력향상과 활용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보화교육 실태에 있어서는 교육경험이 수
가 58.0%이고, 비교적 최근에 교육받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있다. 교육받은 중간년도 3개월이하에
69.0%로 가장 높게 나타나 교육에 참여하는 기간이
단기간임을 알 수 있다. 교육장에서의 교육은 학교나
직장의 36.3%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
육의 가장 많이 받은 곳 역시 사설학원·컴퓨터학사
가 3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보화관계 교육계
확대 경우 여건이 되면 교육을 받을 계획이다 66.1%
로 나타나 정보화교육에 대한 의지가 높게 나타났
다. 또한 정보화 교육의 필요성의 경우 28.8점으로
나타나 필요성을 그다지 높게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화 교육의 관심이나 흥미는 3점으
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화 교육의 장
애요인으로는 가족이 다른 일이 바빠서 3.2점
으로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나는 등 주로 시간적,
경제적 요인이 교육환경적 이유를 들고 있다.

정보화의 효과는 전체 평균 3.29점으로 중간점 3
점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개인적인 능력이
나 자질의 향상 3.81점, 가족 및 주변사람들로부터의
인정 3.29점, 직업적 성취(취업, 수입증가 등) 3.27점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화 사회로 인한 자신의 변화
는 전체 평균 2.47로 변화의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적 자극을 받은 3.39점, 생활
의 활약을 얻은 3.67점 등의 영역에는 중간점보다
다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정보화 사회로 인한
가족의 변화도 전체 평균이 2.69점으로 낮게 나타
났는데, 가족에게 긍정적인 교육적 영향을 제한
한 모든 영역에서 3점 미만으로 나타나 가족의 정보
화가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정보화의 차이를
보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정보화 효과는 20
대 집단, 결혼자수손가 5년이하 집단, 고졸자 대졸
이상집단, 51-100만원 집단과 101-150만원집단, 사무
직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혼집단보다 미혼집단
에서 교육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정보화사회로 인한 자
신의 변화는 20대 결혼자수손가 5년이하, 본인 월
평균 소득이 51-100만원, 101-150만원, 201만원이상
집단, 직업의 경우 사무직, 전문직, 경영관리직, 서
비속직, 주부 집단, 미혼집단이 기혼집단보다 자
신의 변화를 더 크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가족의 변화는 대졸이상 집단, 가족 월평균소득
이 51-100만원, 101-150만원, 201만원이상 집단에서
가족의 변화를 더 크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정보화 관련변인에
정보화 효과, 자신의 가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이머한가들 본 결과, 먼저 정보화 효과에 미치는 영
향은 컴퓨터 이용정도, 정보화 목적, 정보화교육 필
요성 등이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는 27%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컴퓨터 이용정도, 정보화 목적, 정보화 효과 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영향력은
36%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의 변화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은 정보화교육시 장애요인, 정보화 효과, 
자신의 변화 동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영향력은 36%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여성들의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
이용정도나 정보화 기술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은

-185-
것으로 나타났고 정보화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도 42%에 이르고 정보화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을 처음 받은 시기는 오래 전인 경우에는 기술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정보화 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정보화 차이를 보면 정보화 효과, 자산 및 가족의 변화 등에서 연령, 학력, 소득, 직업 등 사회인구학적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보아 정보화는 집단적 특성에 따라 그 수준 정도나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따라서 정보화에 대한 접근도 개인적 특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게 한다. 이 중에서 가족의 변화는 정보화 효과나 자산의 변화처럼 다양한 개인 변인에 의해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데, 다만 학력이나 소득 등은 집단적 변화에 차이를 보이는 변인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연령이나 결혼지속수준 등은 기준으로 볼 때 정보화의 수용 정도는 자연적인 경향에서 매우 크므로, 여성능력, 경상능력 등 정보화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도출하려면 여성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가능한 이기적 시기에 시행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세째,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정보화 관련 변인을 동시에 분석해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정보화 효과나 개인 혹은 가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인구학적 변인보다는 정보화 관련 변인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계층보다는 정보화교육에 대한 욕구나 사회 정보화 참여도 등 직접적 관련 변인이 정보화 효과보다 알려진 관련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보화에 대한 적극적 참여의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교육 등에 참여하여야만 개인적 능력이나 자산 향상 등 정보화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결국 여성정보화는 정보화의 필요성이나 목적 등 정보화 참여에 대한 의식 수준의 고양이 이루어져야 소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단순하고 일률적인 정보화교육보다는 수요자의 욕구를 지극히 고려하고 그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네째, 연구결과를 보면, 정보화의 효과를 인식할 수록 자신의 변화에 대한지각도 높게 나타나고 있고, 또한 자신의 정보화가 가족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정보화 사회로 인한 가족의 변화는 매우 더더욱 입안되고 있는데 이는 연구결과에서 가족이 여성의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나, 또 다른 변으로는 가족의 변화 및 가족 내 상호작용 유형 등 우리나라의 전반적 가족행태가 아직은 전반된 자료를 보여주고 있는 결과이다. 따라서 여성정보화가 특히 성역할평등, 근거적 가치관 고양 등의 측면에서 가족의 변화는 이끌기는 쉽게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여성정보화가 여성 자신의 능력 개발이나 긍정적 가족변화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교육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정보화 효과 증대는 정보화 목표나 필요성 인식이 중요하다는 이에 대해 제계적인 교육, 홍보 등이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대로 정보화교육을 받았다는 의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아 적절한 조언이 행성되다면 그 개인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보이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척차, 일부 결과와 중소도시 거주자만을 선정하여 조사가 시행되었으므로 조사대상에 있어 전국 지역이 포함되지 않은 지역적 한계성을 들 수 있고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는 데 이론적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다. 물론, 정보화의 개념을 적용함에 있어 소프트웨어나 인터넷 사용에 편리하였으므로 정보화의 포괄적 특성에 접근하기에는 제한점을 있음을 합시다 하겠다.

■ 참고문헌
김제은(1997), 정보문화 가족 내 관계구조, 한국가족학회 및 한국가족문화학회 춘계학술대회, 김하(1996), 지방 도시 여성의 사회교육 요구 분석,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박무진(2000), 정보문화와 가족생활. 가족문화정보사회, Net, 한국가족문제학회 주계 학술대회.
서병조(1999), 국민 정보문화 교육과 여성정보문화 운동의 발전방향, 여성전용 인터넷 잡지 이매진 창간기념 심포지엄, 11-41.
손봉숙(1998), 한국여성의 정보문화 현황 및 과제, 정보사회와 아시아여성언더-여성정보문화의 현황 및 과제, 한국여성정보원.
양순애(2000), 여성의 정보문화 저변화. 21세기 여성정보화와 정보화 1주년기념.
오태영(1998), 여성 정보화를 위한 사회의 역할. 여학생 정보화 능력 신장방안 모색. 이화여대 멀티미디어 교육원.
오중근(1998), 정보문화와 여성인력, 여학생 정보화 능력 신장방안 모색. 이화여대 멀티미디어 교육원.
유영환(1998), 우리나라 여성 정보화 현황 및 발전 방향. 여학생 정보화 능력 신장방안 모색. 이화여대 멀티미디어 교육원.
이태웅(1999), 국민 정보문화 교육과 여성정보문화 운동의 발전 방향. 여성전용 인터넷 잡지 이매진 창간기념 심포지엄, 42-51.
한국교육개발원(1987), 미래 사업사회를 지향한 교육발전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02년 8월 31일 첨부, 2002년 12월 11일 채택)